

장애인 부부가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는 간절히 아이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램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두 번에 걸친 유산은 그들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렵게 들어선 세 번째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 또다시 통증이 찾아왔다. 황급히 병원으로 찾아가던 그들에게 의사는 아직 아이가 살아 있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들에게 정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 의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들의 빛속 아이에게서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공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아이의 뇌가 팔 쪽으로 나와 있는 치형적인 장애였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호흡장애를 일으킬 것이기에 아마도 15분을 살기가 힘들 거라고 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부부는 순간 아연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얼마나 기다려던 아이인가?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애뉘하게 사랑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하나!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의사와 아이를 뱃속에서 계속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는 그 말을 냉정하게 쫓았다. 그럴 수 없다. 당신이 아이를 낳은 후 받아야 할 상처는 지금 아이를 유산시킬 때 받게 되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에 의사인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의사는 버럭 화를 내었지만 결국 그들은 아이



정진호 지음 / A5신형 / 224면 / 8,000원

를 키우기로 결단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감격 가운데 아이를 받았을 때, 카스(Lucas)라고 지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몇 달의 시간을 루카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들은 매일 루카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었고, 루카스를 위해 기도했다. 루카스의 꿈을 볼 수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그러나 아이의 머리 뒤에는 뇌가 빠져나온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의사의 충고를 따라 부부는 루카스를 최대한 밀착하여 안아 주었다. 부모의 피부 접촉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감격했으며 그로 인해 감시했다. 루카스의 심장 박동을 느낄 때마다 부부의 예절한 사랑이 루카스의 혈관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들이 안에는 사랑으로 일태된 생명의 신비가 있었던 것이다. 사랑은 사랑으로 일태된 생명의 신비가 있었고 있었다. 그러나 90분이 지나고 한 시간이 지

나갔다. 루카스는 17일을 살아냈다.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임종을 아프게, 그러나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루카스를 떠나보내던 날, 데이브레이크 예배당에서는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하는 루카스의 장례 예배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단 위에 놓인 작디작은 관 안에 루카스의 어여쁜 시신이 들어 있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슬퍼했다. 예식이 끝나고 루카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앞으로 걸어나와 관 앞에 선 루카스의 부모가 잠시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르니다. 지금도 우리는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아버지가 말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 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 (첫 번째 이야기 생략)에서 발췌, 인용

아듀 2003년, 올해의 책들

박 넝쿨의 사랑
김서택 목사의 소신지서 강해 시리즈에 속한 새로운 <요나서> 강해집.
‘물고기 뱃속의 요나’ 보다는 ‘니느네성 박넝쿨아래의 요나’에 초점을 맞추어, 요나의 정경에 담긴 이종성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 주고 있다.
김서택 지음 / 176면 / 6,500원

이재철 목사의 청년서신
이 시대 청년을 위한 선물용 양장본.
장기 베스트셀러 <청년아, 울러다오 뿌려야 한다> <영으로 신실하게> 두 권을 고급양장본 한 권에 합본한 선물용 도서.
이재철 지음 / 544면 / 13,000원

예기치 못한 기쁨
완고한 무신론자였던 루이스의 자전적 회심기.
“새하얀을 시작하는 지성인 후배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신앙에 회의와 불신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인광국/우주대학교 부총장,
C. S. 루이스 지음/강우나 옮김 / 360면 / 양장 / 13,000원

레프트 비하인드
타임·워싱턴포스트가 극찬한 기독교 소설.
타인지가 “기독교 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극찬한 스티븐 소설 <Left Behind> 시리즈의 청소년판.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삼아 세기말의 상황을 스펙터클하게 그려냈다.
팀 라헤이·제리 헨킨스 지음/홍종락 옮김 / 504면 / 11,000원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를 위한 체계적 예배 특강이자 교육서.
“지금의 예배순서가 생기기 된 배경을 성경적이면서도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주희재/서울영안교회 담임목사
송인규 지음 / 240면 / 7,800원

강한 딸 키우기
우리 시대 모든 딸들의 성숙과 성장에 바쳐진 책.
현대사회에서 신의 형상에 따라 지을 받은 존재로서 딸들을 강하게 키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리사 맥킨 지음/홍성락 옮김 / 416면 / 13,000원

내게 있는 것
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시대의 청년들에게 띄우는 세 번째 청년서신.
“세상에 있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황제의 논리 앞에서 대담히 영원한 논리를 말할 수 있는 청년이 되고자 하는가? 이 책을 통해 분명한 해답을 얻을 것이다.” -김명환/동은통신교회 청년양육부
이재철 지음 / 280면 / 본문 2색 / 8,500원

Audio-내게 있는 것
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시대에 도전하는 깨움의 메시지.
거대주의·성공제일주의·황금신주의로 대변되는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물신(物神)의 시대’에, 주님의 논리-영원의 논리를 감동시킨다.
이재철 지음 / 양장 케이스 / Tape 4개 / 9,500원

여지도 잘 모르는 여자의 성
크리스천 여성 2천 명이 말하는, 남자와 너무 다른 여자의 성.
“임상심리학자와 가족치료사들의 연구와 해설은 여성의 성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주고 있다.” -이영애/신성의 상담연구소장
이치훈트 하트 지음/김종철·박진숙 옮김 / 360면 / 10,000원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
평균적인 크리스천 남성 600명과 상담 자료와 상담 경험을 담은 책.
“남성의 성적인 특징들을 시기별로 잘 정리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자기를 성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데 더욱 효과적.” -김병년/IVP 후원사역 부 대표간사
이치훈트 하트 지음/윤선경 옮김 / 304면 / 9,000원 / 개정판

부부도 잘 모르는 부부의 성
부부의 성에 관한 설문문의 지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성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꼭 읽어야 할 책.” -주희재/서울대교수
조영철 지음 / 360면 / 11,000원

천국과 지옥의 이혼
국내 최초로 번역·소개되는 루이스의 신학적 판타지 소설.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루이스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는 훌륭한 책이라 생각한다.” -김도원/서울대 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C. S. 루이스 지음 / 장영 옮김 / 192면 / 양장 / 8,800원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고 대천덕 신부 필생의 기도와 사상이 담긴 유작(遺作).
“대천덕 잘 모르는 남자의 성(성경)에 대해, 지음(지음)을 할 것이 제국의 힘과 권력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수반한다. 이 책은 현대의 삶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이 책은 모든 불평과 분노를 영적으로 하여 각종 죄를 사하게 하는 영적인 구원을 위한 지침서로써 읽을 가치가 있다.”
대천덕 지음 / 정진호·홍종락 옮김 / 248면 / 양장 / 10,000원

요한과 더불어 3
6년 2개월에 걸쳐 선포한, 이제 절 목사의 요한복음 설교 제3권.
종교개혁의 설교로 구성된 신성되어 있으며, 생명을 구하는 교의, 생명을 구하는 신자라는 신자라는 여태야 하는지를 의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재철 지음 / 416면 / 13,000원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미 대통령의 참모에서 하나님의 참모가 된 찰스 콜슨의 회심기.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루기 위해 정치가나 사회 활동가들 꿈꾸는 사람들이 계 계 책을 반드시 읽기를 권한다.” -이진우/공의정치 실천연대 사무국장
찰스 콜슨 지음 / 양재현 옮김 / 608면 / 양장 / 개정판 / 16,800원

김미라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대한민국에국무인회를 조직한 김미라리아의 생애와 사상.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인물인 김미라리아의 독립운동과 여성운동, 교육사업 등 일생의 궤적을 추적하여 쓴 최초의 김미라리아 연구서.
박용욱 지음 / 512면 / 양장 / 20,000원

사람의 향기, 신앙의 향기
한 젊은 기자가 바라본 세상살이·신앙살이에 관한 109편의 감동 에세이.
“그가 얻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성찰이 부러웠다.” -나희현/시인
박병철 지음 / 240면 / 8,000원

Audio-인간의 일생
하나님 말씀을 자기야망의 도구 삼는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
2003 장신대 신대학 사경회 주제 설교로, 자기야망을 걷는 사역자에게 정확한 지도가 제공되는 안도담을 주는 책이다.” -전병호/성일교회 담임목사
이재철 지음 / 양장 케이스 / Tape 5개 / 13,000원

청년사역, 맘에 헤대하지 말지!
청년대학부, 청년사역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천 매뉴얼.
“지도map과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청년사역의 길을 걷는 사역자에게 정확한 지도가 제공되는 안도담을 주는 책이다.” -전병호/성일교회 담임목사
고석환 지음 / Young2080 집필팀 지음 / 280면 / 13,000원

치유의 꿈, 루카스 이야기
짧은 생을 살다간 아이 루카스가 던져준 치유의 비전.
지금까지 짧은 생을 살다간 아이 루카스를 모티브 삼아, 생명·이웃·부부·아들·사랑·진리·양심·겨레 등 12가지 테마로 치유와 회복의 비전을 풀어낸 감동적인 에세이.
정진호 지음 / 224면 / 8,000원

타인에 대한 관용을 일깨우는 유쾌한 이야기
“하나님 부인이 파리에서 도착한 새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자 위에는 닭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머리에 닭을 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
유난히 깔끔 편는 리틀런 사람들은 여왕의 방문을 준비하느라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었어요. 고리타분한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씩 부인이 기상천외하게 생긴 새 모자를 쓰고 나타나자 충격과 불쾌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꼬꼬란 모자를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씩 부인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쓰고 싶단 권리를 주장하며 바운 사람들들과 맞섰습니다. 여왕이 도착하자 사람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리틀런 사람들은 비로소 삶을 재미있게 만드는 우스꽝스럽고 밝은 행동들을 즐긴 줄 알게 됩니다!
〈리틀 할머니의 선물〉의 지은이가 통찰력과 유머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원색한 유채와 그릴과 워드 있는 스토리 전개로 통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을 유쾌하게 일깨우는 그림동화입니다.
저프 브라운 글·게일 드 마렌 그림 / 양재현 옮김 / 양장 / 22면 / 11,000원

2003 흥성사 '올해의 뉴스'
1. 흥성사의 산 중이(산)인 수 있는 어머니 이사
2. 이남진 이사, 근무 20년!
3. 편집부 이사, '올해의 편집부' 상 수상!
4. 흥성사의 '보물창고' 서고 건축 시작
5. 올해의 '보물창고' 로 불리는 서고 공사가 들어가서 현재 상 황시까지 마치고 준공에 반박을 하고 있다.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흥성사를 이끄는 사령관 주은은 교수의 독자의 '보물창고' 가 되도록 기도하며 지켜가고 있다.
6. 올해 20주년, 축제의 나날이 막을 내렸다.
올해에는 출간 후 오랜 세월 동안 변함 없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 두 권이 출간 20주년을 맞았다. 스무 살 청년의 나이가 된 책의 주인공은 <성경과 영성>에서 두 권이다. 강교목에게 두 권 다 소설로서는 기독교문학에서 두 권을 갖게 되었다.
홍성사의 산 중이(산)인 수 있는 어머니 이사
이남진 이사, 근무 20년!
편집부 이사, '올해의 편집부' 상 수상!
흥성사의 '보물창고' 서고 건축 시작
올해의 '보물창고' 로 불리는 서고 공사가 들어가서 현재 상 황시까지 마치고 준공에 반박을 하고 있다.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흥성사를 이끄는 사령관 주은은 교수의 독자의 '보물창고' 가 되도록 기도하며 지켜가고 있다.
올해에는 출간 후 오랜 세월 동안 변함 없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 두 권이 출간 20주년을 맞았다. 스무 살 청년의 나이가 된 책의 주인공은 <성경과 영성>에서 두 권이다. 강교목에게 두 권 다 소설로서는 기독교문학에서 두 권을 갖게 되었다.

치유의꿈, 루카스 이야기
17일간 세상을 살다간 루카스, 그가 던져준 치유의 비전!
“이 책을 상쳐 읽은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바칩니다.”
두 번의 유산 끝에 임신한 셋째아이, 그러나 지병적 장애로 인해 의사의 인공유산 권고를 받은 생명. 장애인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 찬양을 들으며 태어난 단 17일간의 이 땅에 살다간 루카스. 이 책은 루카스 이야기로 시작하여, 생명·이웃·부부·아들·사랑·진리·양심·겨레 등 12가지 테마로 치유와 회복의 비전을 풀어낸 감동적인 에세이다.
정진호 지음 / A5신형 / 224면 / 8,000원
정진호
코스타(KOSTA·해위협생수영회) 강사로 10년째 헌신하고 있는 저자 정진호 교수는 명망 과가대 설립을 꿈꾸며 북·통일·중국을 향한 세 가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연변과기대에서 1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의 일생
하나님 말씀을 자기야망의 도구로 삼는 시대에 고함
2003 장신대 신대학 사경회 주제 메시지. 자기야망에 따르는 '이단'의 삶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예멘'의 삶을 살도록 간직하면서도 뜨겁게 호소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경회 기간동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가장 감격한 사경회 마지막날의 결단과 파충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프로 목회자가 됩시다. 프로란 철저한 자기 관리란 하는 사람입니다! 라시며 설교를 마무리하는 순간, 목이 잠기시어 울먹이면서 말없이 학우들을 잠깐 응시하시는 목사님의 모습과 눈물만 단 아래에서 말씀을 들은 신학도들에게 많은 말씀과 더불어 크나큰 무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도형 전도사/온라인(뉴스앤코어) 2003.9.8
01 역사의 지평 4:13-22 02 홀로, 더불어 성장 16:4-13 03 베레사 옷사 실화 6:1-8 04 예언과 이단 11:1-5 05 회교와 동양 11:4
이재철 지음 | 양장 케이스 | Tape 5개 | 19 권 | 13,000원



홍명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청년·대학생들의 지성과 영성을 높이는책

“그동안 나는 어디서나 안식을 찾아보았지만, 책을 들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 - 토마스 아 쾰름스

순전한 기독교

터임지가 극찬한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 "19세기 서구인들이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을 읽고 기독교에서 유물론으로 건너갔다면, 20세기 서구인들은 이 책을 읽고 다시 유물론에서 기독교로 건너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 - 동아일보 ※ 2001 기독교출판문화상 번역최우수상(일반신앙부문) 수상도서
정경철·이종태 옮김/원음의 글들 185/A5신변형/양장/352면/12,500원

대천덕 자서전-개척자의 길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의 자서전. 믿음의 모험에 뛰어들라고 권면하는 그의 고백과 더불어, 함께 실려 있는 사진이 생생한 감동을 더한다.
※ 1999 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평신도 부문) 수상도서
대천덕 지음/양해원 옮김/원음의 글들 167/A5신변형/양장/268면/8,800원

새벽을 깨우러오다

많은 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찾이온 간증의 백미. 70년대 청계천에서 도시 빈민들과 한 몸이 되어 살았던 청년 김진홍(현 두레교회 담임목사)의 뜨거운 이야기가 복음과 삶의 역동적인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김진홍 지음/원음의 글들 6/A5신/208면/6,500원

회복의 신앙

“중생”을 체험하기까지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저자가, 참 신앙의 본질을 여섯 가지 완결성을 갖춘 주제로 풀어내고 있다. 깊은 주해와 생생한 예화가 감동적인 책.
이재철 지음/원음의 글들 171/A5신/272면/7,000원

나의 세계관 뒤집기

한국 라브리 총무 성인경 목사가 영국 라브리에서 영적인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균형잡힌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성인경 지음/원음의 글들 161/A5신/276면/7,500원

참으로 신실하게

기독교 역사(歷史)는 유구히되 말씀의 역사(叢書)는 죽어 버린 유럽 교회를 목도하며 신앙의 본질을 숙고한 저자가 이 땅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영성의 아포리즘! “기독교의 핵심—말씀, 믿음, 구원, 삶 이 네 가지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단단히 구명하고 있는 책!” - YES 24 편집자 추천
이재철 지음/원음의 글들 191/A5신변형/240면/7,500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직업, 비전, 선택, 고난, 용기, 물질, 문화, 은혜 등 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살고 가꾸어야 할 20가지 영적 주제에 관한 ‘통쾌한’ 가르침.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스무 가지 영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 국민일보
이재철 지음/원음의 글들 177/A5신변형/248면/7,000원

이기적인 돼지, 라브리에 가다

“젊은 세대와 초신자를 위한 세계관 입문서”
프랜시스 웨퍼 박사의 딸 수잔 웨퍼 맥클리의 톡톡 튀는 세계관 이야기. “수잔 맥클리는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대답하는 데 성공했다.” - Campus Life Magazine
수잔 웨퍼 맥클리 지음/장정철·박인숙 옮김/A5신변형/224면/7,000원

요셉의 회상

꿈쟁이 요셉이 회고록 형식으로 전하는 인생과 신앙 이야기. 자기 처지와 환경, 가족관계 등에 낙심한 이들에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펼쳐지는 요셉의 ‘회고’는 진한 감동과 도전을 준다. 자유철 지음/A5신변형/240면/6,800원

크리스천 새배기를 위한 대학생활 길잡이

대학생활에 대한 캠퍼스 현장 사역자들과 전문가들의 유익한 조언과 알짜 정보를 모은 대학생활 가이드. “선배들은 갖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팔아서라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이 책을 사 줄 필요가 있다.” - 고석환 / 젊은이성교정보연구센터 대표
학원복음화합회의/A5신변형/176면/3,500원

신앙 훈련의 교과재로 널리

검증받은 책

1 정말 쉽고 재미있는 평신도 신학 1, 2

오랜 성찰과 연구를 통해 집필한 대중적 신학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깊이 뿌리박힌 왜곡된 신앙과 신학에 대한 탁월한 해독제! “이 책을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에게 먼저 권하고 싶다. 아울러 이 책은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믿음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 강영한 / 서강대 교수 · 기윤실 공동대표
송인규 지음/원음의 글들 183 · 184/A5신변형/각권 296면/각권 8,500원

2 송인규 교수의 신앙 카페 1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성경적 · 신학적으로 핵심을 짚꼭 짚어 주는, 송인규 교수의 예배 특강! 주보에 나오는 현재의 예배 순서가 어떻게 해서 무슨 목적으로 정해졌는지와 더불어 예배 요소를 조목조목 짚어 가며 알려 준다. ※ 각장마다 토론을 위한 질문 수록
※ 목회자 · 직분자 · 청년 모두를 위한 알찬 예배 교육서!
송인규 지음/원음의 글들 197/A5신변형/240면/7,800원

3 성경, 흐름을 잡아라

성경 66권을 하나의 맥락으로 조망해 주는 ‘유기적 성경 연구서’. 성경을 일관된 흐름으로 이해하려는 이들을 위한 개인 성경연구서와 평신도 리더 교재로 적합. ※ 미국 개혁 교단 장년부 교재,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교재 존 팀어 지음/박해영 · 이석열 옮김/A5신변형/424면/12,000원

4 열흘 동안 배우는 주기도문 학교

수도원적 영성이 임영수 목사가 쓴 주기도문 교육서. 주기도문 강해를 토대로, 열흘에 걸쳐 하루 한 장씩 주기도문 각 구절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 새신자 · 구역 · 소그룹 교육 교재로 적합, 각종 복음 · 토론회를 위한 질문 수록
임영수 지음/A5신/128면/4,800원

5 2주 동안 배우는 사도신경 학교

수도원적 영성이 임영수 목사가 쓴 사도신경 교육서. 저자의 통찰적 역사관과 통찰력으로 풀어낸 사도신경 강해를 바탕으로, 2주만에 걸쳐 사도신경을 공부할 수 있게 엮었다. ※ 새신자 · 구역 · 소그룹 교육 교재로 적합, 각종 복음 · 토론회를 위한 질문 수록
임영수 지음/A5신/224면/6,500원

6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불신자를 복음으로 초대하는 열린예배의 모든 것. 불신자를 위해 수년간 얻어 온 열린예배를 바탕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관해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책. ※ 예배 인도자 · 봉사자 위함서
에드 담슨 지음/박해영 · 김호정 옮김/276면/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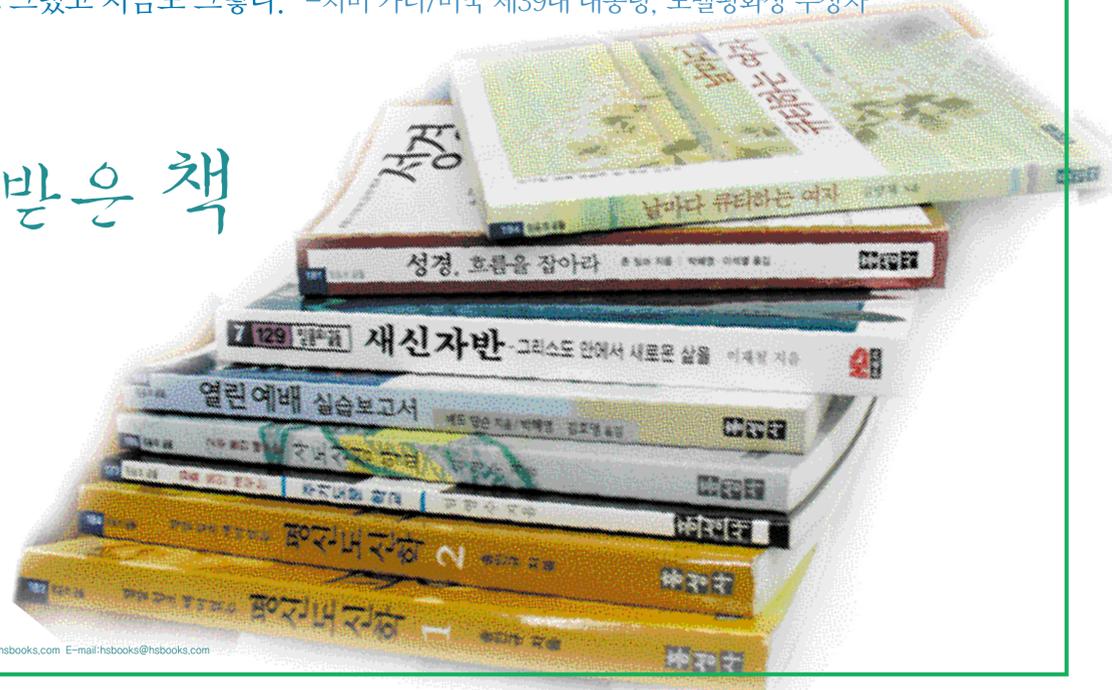
7 새신자반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새신자 양육 기본교재. 이재철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고 양육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해 쓴 쉽고 명쾌한 스테디셀러 신앙교육서. ※ 새신자 · 구역 · 직분자 훈련 교재로 적합
이재철 지음/A5신/400면/9,000원

8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큐티선교회 설립자인 저자가 들려주는, 큐티로 새롭게 변화된 20년 삶과 큐티 이야기. 고된 시집살이, 가솔, 남편과의 사별 등 온갖 역경을 통해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온 저자의 간증과 자신만의 큐티 노하우가 감동적이다. ※ 여인도회 큐티 교재 · 신물용으로 적합, 출정일 · 김동호 목사 강력 추천!
김영재 지음/A5신/248면/본문2도/7,800원

“어머니는 아침, 점심, 저녁 식탁에서 낮이고 밤이고 책을 읽었다. 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 지미 카터/미국 제39대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



홍명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